

한국 중소도시 미군기지 주변의 근린 비교와 특성 연구

A Study on the Neighborhood Comparisons and Characteristics of U.S. Base Periphery of Small and Medium Cities in Korea

윤복상*·김걸**

BokSang Yoon·Kirl Kim

■ 목 차 ■

- I. 서론
- II. 선행연구 및 이론적 고찰
- III. 분석 과정
- IV. 한국 중소도시 미군기지 주변의 근린 비교
- V. 한국 중소도시 미군기지 사례분석: 캠프 캐롤을 중심으로
- VI. 결론

한국전쟁 이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행정협정에 의해 전국 각지에 주한미군 부대가 주둔하게 되었다. 미군기지는 한국 속의 미국으로 한국 시민들의 출입과 사용이 제한되어 왔다. 주한미군의 부대 등 군사 목적의 사용지는 공여구역으로 명명되었고, 그 수는 129개 소에 달한다. 이중 80개 소가 반환 예정이며, 주한미군의 핵심 군사 시설들은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US Army Garrison Humphreys)로 대거 이전 중이다. 기존 공여구역들이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 입지한 것 이외에도 동두천, 의정부, 평택, 철곡, 군산, 포항 등과 같이 중소도시에 입지한 경우도 많다. 이 연구는 중소도시가 쇠퇴하는 현 상황에서 중소도시 내 미군기지 특성 연구가 의미가 있으며, 지역 쇠퇴 극복을 위한 해답 모색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시작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미군기지가 중소도시에 입지한 사례가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미군기지 주변 근린 지역을 비교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는데 있다. 집계구나 동, 리 단위의 지도화를 통해 기술통계적 비교를 수행하였다. 또한 현장 조사를 통해 지역의 실제 현황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중소도시에 입지한 미군기지의 주변 근린은 주거를 뒷받침하는 기능이 부족하며, 군사 시설의 인

* 제1저자,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지리교육전공 박사과정

** 교신저자, 한국교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논문 접수일: 2024. 6. 14. 심사기간: 2024. 6. 14. ~ 2024. 7. 22. 게재확정일: 2024. 7. 22.

점으로 개발이 어려운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역 교통의 흐름이 군 기지 위주로 발생하며, 도심부와 이격성으로 공공복지가 부족함을 판단하였다. 하지만 다양한 문화가 병존하며, 이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시도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중소도시에서 미군기지의 입지로 형성된 주변 근린 지역의 특성과 실태를 이해하는 군사지리학의 기초가 될 것이다.

□ 주제어: 주한미군, 미군기지, 공여구역, 근린 지역, 중소도시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orea-US Administrative Agreement which are signed after the Korean War resulted in the presence of US troops in various parts of the country. US military bases are the United States in Korea, and the access and use of Korean citizens have been restricted. The location of use for military purposes, such as units of the US Forces in Korea, was named a donor area, and the number reaches 129. Of these, 80 areas are scheduled to be returned, and a large number of the core military facilities of the US Forces in Korea are being relocated to the US Army Garrison Humphreys in Pyeongtaek. In addition to the existing donor areas being located in large cities such as Seoul, Busan, and Daegu, there are many cases where they are located i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such as Dongducheon, Uijeongbu, Pyeongtaek, Chilgok, Gunsan, and Pohang. This study began with the background that research on the characteristics of U.S. military bases i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is meaningful in the current situation in which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are declining, and it is necessary to find answers to overcome regional declin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neighboring areas around US military bases and to understand their characteristics, focusing on the fact that there are many cases where US military bases are located i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Descriptive statistical comparisons were performed through mapping of aggregation, *Dong*, and *Ri* units. In addition, through field surveys, the actual status of the region was grasped.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surrounding neighborhoods of US military bases located i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lacked the function of supporting housing, and that development was difficult due to the proximity of military facilities. In addition, it was judged that the flow of local traffic occurred mainly on military bases, and public welfare was insufficient due to the separation from the city center. However, various cultures coexist, and through this, it is possible to attempt to revitalize the region. This study will be the basis of military geography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and actual conditions of neighboring areas formed by the location of US military bases i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 Keywords: US Forces Korea, US Military Base, Donor Area, Neighborhood Regio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I. 서론

약 72년간 주한미군은 우리나라의 일부 시·군에 주둔하였다. 주둔의 근거는 한국전쟁(1950~53) 이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과 한미행정협정(SOFA)이며, 이는 직·간접적으로 지역에 사회·경제적 영향을 꾸준히 미쳐왔다(한인영·오은주, 2014). 미군기지의 입지에 따라 지역 경제가 미군기지와 관련된 일자리 환경에 긍정적 영향력을 받기도 하였다(Alvah, 2007). 하지만 군사지역 입지에 따른 개발 제한 등으로 부정적 효과 역시 나타났다. 특히 미군기지 중 다수가 시민들이 거주하는 주거지역 일대에 입지한 경우가 많은데 사용이 제한된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강소영 등, 2021). 또한 미군의 공여구역 사용 이후 밝혀진 환경 오염과 생태 파괴 문제 역시 장기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사안으로 평가받고 있다(Morrow, 1991; Shulman, 1992).

현재 한국의 미군기지로 활용되었던 제반의 토지는 129개 소로, 이중 80개 소가 반환공여구역으로 지정되어 반환되었거나 반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장윤배, 2018). 특히 부산 캠프 하야리아(Camp Hialeah)의 경우에는 반환과 공적 공간으로의 조성 요구가 강하였고(이왕건, 2011), 이에 따라 현재 부산시민공원으로 새롭게 재생되기도 하였다.

현재까지의 경향을 살펴볼 때 상대적으로 큰 대도시의 미군기지들은 여러 측면에서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최재현·남영우(2014)는 용산 미군기지의 반환 이후 활용 방안에 대해 그 가치와 관련하여 발전 방향을 제안하였다. 또한 상술하였듯이, 부산의 경우 캠프 하야리아(Camp Hialeah)의 반환 이후 부산시민공원으로의 개발 사례가 각 계와 언론매체 등에서 주목을 많이 받아왔다. 또한 대구의 캠프 워커(Camp Walker)와 캠프 헨리(Camp Henry), 캠프 조지(Camp George)의 경우 미 19지원사령부가 위치하여 Area IV 지역의 본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군사적인 중요성을 인정받아왔다.

반면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다수가 평택으로의 기지 이전에 의한 지역 효과를 주로 다루고 있어 평택을 제외한 중소도시 미군기지의 주변 지역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인 상황이었다(장정민, 2006; 송석호 등, 2022). 중소도시의 쇠퇴가 심화되고 있는 현 사회적 상황에서 중소도시 내 미군기지라는 특수한 지역 주변에 대한 비교 및 특성 연구가 의미있고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또한 이 연구가 중소도시와 관련한 지역의 쇠퇴와 발전 전략에 대하여 해답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중소도시에 입지한 미군기지 주변 근린 지역을 인구나 물리적, 공공복지 측면에서 비교하고 지역 쇠퇴 실태를 중심으로 특성을 고찰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첫

째, 미군기지 주변 근린 지역의 구조를 여러 정보를 통해 비교하여 공통점 및 차이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근린이 도시 내에서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음에 착안하여 정보 간 비교를 통하여 지역 간 분류 및 구조 도출과 대안적 제언도 함께 병행하고자 하였다(Delmelle, 2015; Pacione, 2009). 둘째, 미군기지 주변 근린 지역의 특성을 해석하고 답사를 통하여 실제 지역의 쇠퇴 현황 및 주민 의견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하여 기술적 통계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었다.

연구 범위는 시간적 차원에서 정보별로 구득이 가능한 가장 최신의 시점으로 설정하였다. 공간적 차원에서 연구 대상은 한국 중소도시에 입지한 미군기지 주변의 근린 지역으로, 5개 지역 내에 소재한 7개의 미군기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다만 답사지역으로 경상북도 칠곡군에 입지한 캠프 캐롤(Camp Carroll) 기지를 사례 지역으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는 문헌 연구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혼합하여 균형있는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먼저, 미군기지에 관한 여러 문헌들을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정보의 종류에 따라 집계구, 혹은 면·동·리로 스케일을 나누어 미군기지 주변의 지역 구조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구조를 바탕으로 미군기지 주변 근린지역의 특성을 해석하고 사례 지역을 설정하여 면담 및 답사를 실시하였다. 즉, 다양한 연구 방법의 병행을 통해 지역의 실제적 측면을 누락시키지 않고자 하였다.

II. 선행연구 및 이론적 고찰

한국전쟁 이후 휴전협정의 체결과 함께 한반도와 인근 지역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다(Shelling, 1996; 남정욱, 2002). 미군은 휴전협정 체결 이후 주요 전선에 배치되기 시작하였다. 국내에 주둔한 미군기지의 분류는 지역 범위에 따라 나뉜다. 미군 기준에 따라 Area I부터 VI까지 6개의 지역으로 구분되고 있다(USFK, 2023). Area I부터 IV까지는 미 육군이 주둔하며, Area V와 VI에는 미 공군이 주둔하고 있다. 국내 미군기지가 입지하였거나 현재도 입지하는 도시들 중에 서울과 부산, 대구 등의 광역도시들이 있는 반면, 동두천이나 의정부, 평택, 칠곡, 군산, 포항 등 시·군급 도시들도 다수 존재한다.

특히, 파주나 연천, 포천이나 동두천, 의정부 등 경기도 북부 접경 지역에 전투형 야전 기지가 설치되었다. 경기도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된 미군은 보병 제24사단과 제25사단, 제3사단과 제7사단, 제2사단(2nd Infantry Division) 등 5개 사단들이었다. 이중 현재까지도 유일한 전투 부대로 기능하는 사단은 제2사단이다. 제2사단의 경우 최초로 카투사(KATUSA)를

창설한 부대이다. 현재 서울 북부 지역의 미군기지들 중 동두천시에 소재한 캠프 케이스(Camp Casey)나 캠프 호비(Camp Hovey) 기지를 제외하고 반환구역으로 설정되어 반환이 완료 혹은 진행되고 있다(Denfeld, 1997; 허훈 등, 2016).

서울 용산의 경우 1953년 8월 15일에 용산기지 내부에 미8군 사령부가 설치되었다. 또한 주한미군사령부나 한미연합군사령부가 기지 내부에 건설되는 등 용산 기지는 주한미군의 본부(headquarter) 격으로 역할을 수행하였다. 내부 미군기지는 메인포스트(Main Post)와 사우스포스트(South Post), 캠프 코이너(Camp Coiner)와 캠프 킴(Camp Kim)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최재현·남영우, 2014). 용산 미군기지(USAG Yongsan)의 경우에도 현재 단계적으로 반환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반환이 완료된 구역은 용산공원으로 시민들에게 개방되었다.

경기도 남부지역에는 K-55(오산 Air Base, AB)와 K-6 기지(Camp Humphreys)가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의 과밀화와 개발압력이 강해졌다. 시민사회의 요구 등이 증대됨에 따라 평택 일원의 토지가 추가 수용 및 공여되었고 2007년 이후 확장된 캠프 험프리스(USAG Humphreys)로 대규모 기지 이전이 시작되었다(장정민, 2006). 이 과정에서 부지매입과 협상 장기화 등으로 실제 이전은 10년 가량 연기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현재 평택으로 이전 완료되었다. 한국과 미국이 공동 분담하여 10조 2,015억원의 비용이 지불되었다(우정범 등, 2020).

한편, 대구를 중심으로 한 영남 지역에서는 캠프 워커와 캠프 헨리, 캠프 조지 등 세 개의 대구 내 미군기지와 경상북도 칠곡군의 캠프 캐롤이 대표적인 미군기지이다. 캠프 헨리에는 미8군 19지원사령부의 본부가 위치하며 캠프 워커와 캠프 조지에는 미군과 그 가족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주거시설이 조성되어 있다. 또한 인근 포항 지역에는 캠프 무적(Camp Mujuk)이 위치하여 미 해병대가 주둔하고 있다(USFK,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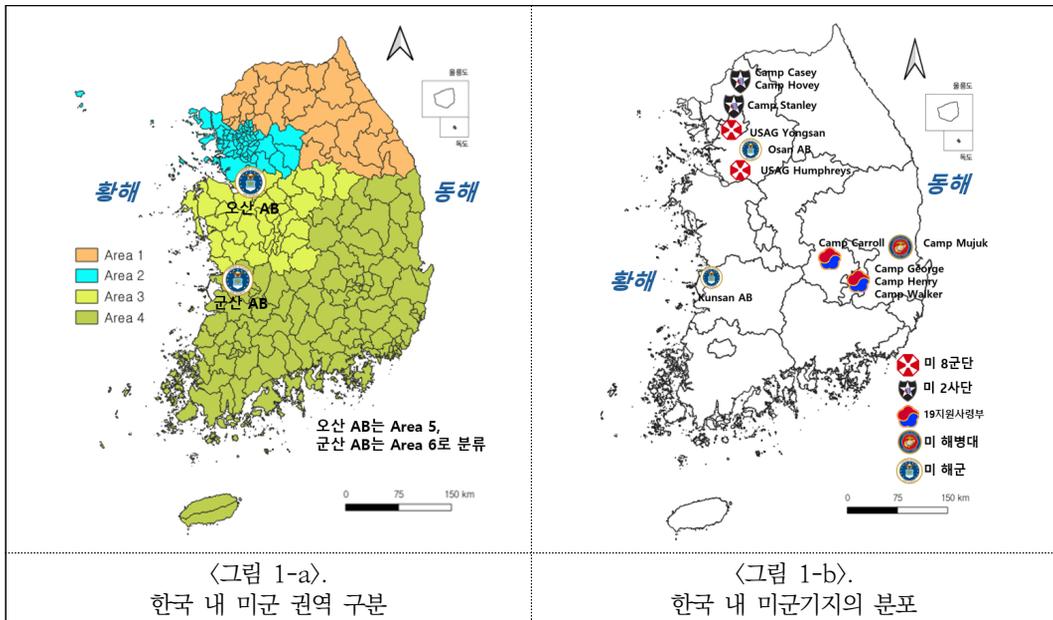
이외에도 상술하였던 오산 AB와 군산 AB, 수원 AB, K-16(서울공항) 등 공군기지와 부산, 진해 등 한국 해군과 함께 주둔하고 있는 해군기지가 있으며, 광주나 청주 공군기지 등은 일반 여객 공항 시설에 함께 주둔되어 있다.

국내 미군기지 입지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 북부에 입지한 기지들의 경우 야전부대가 다수 위치하고 있고 서울과 경기 남부를 포함한 기타 지역들에 소재한 기지들의 경우에는 지휘본부와 보급지원 부대들이 주로 위치하고 있다. 특히 대구 권역에 입지한 19지원사령부의 경우 미8군의 대표적인 전투지원형 부대이다(USFK, 2024).

둘째, 기지 분포를 살펴볼 때, 경기 북부에서 시작하여 서울을 경유하여 경부선 축을 따라 주요 기지들이 입지하고 있다. 또한 공군, 해군기지의 경우 이러한 축과 별개로 기존의 공항과 항구 등 기반시설이 있는 곳에 한국군과 함께 주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셋째, 서울이나 대구 등의 대도시에 입지한 기지들도 있지만, 동두천이나 의정부, 평택, 철곡, 군산, 포항 등 시·군급 도시에 입지한 기지들도 다수 확인하였다. 중소도시의 정의에 대한 입장은 다양하며, 5만에서 50만 명 규모의 도시로 규정하는 경우나(윤현위·이미홍, 2015), 혹은 인구 5만에서 100만 사이의 도시를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박병호 등, 2009). 후자의 경우를 적용하면, 행정구역 상 중소도시에 입지하는 미군기지의 수가 더 많다.

〈그림 1〉 한국 내 미군 권역 및 기지 분포도



출처: USFK(2024), 교육부(2024)를 저자 QGIS로 재구성

〈그림 1〉은 주한미군이 규정하는 미군 작전 권역과 미군기지의 입지 분포이다.

한편, 미군기지과 그 주변 근린 단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첫째, 미군기지 주변지역의 특성과 변화에 대해 장정민(2006)은 평택지역을 중심으로 캠프 험프리스 주변 도시 재정비 사업 방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상권이 위축되고 낙후되고 있는 평택 내 미군기지 주변 지역을 도시재정비사업을 통하여 어떻게 지역 이미지를 재구축할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역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상향식 의사결정구조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며, 갈등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한인영·오은주(2014)는 미군기지 주변지역의 유형별 특성에 따라 발전 방안을 연구하였다. 공여구역이 위치한 시·군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17개의 지

표를 통해 요인점수를 군집분석하였다. 62개 시·군을 지역 특성별로 유형화하였으며, 이는 경제약화 구도심 지역과 재정경제 우수도시 지역, 제조업 기반 도시, 안정형 도시, 쇠퇴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송석호 등(2022)은 평택 지역 내 캠프 험프리스 기지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주변 지역 공시지가 상승률에 대한 영향 요인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버퍼(buffer)로 권역을 분할하여 표준지를 추출해 연도별 공시지가 상승률 변화를 비교 및 분석하였다. 미군기지와의 거리변수 및 토지이용에 관한 상황 변수가 큰 요인이었으며, 미군기지와의 거리가 가깝고 토지이용이 전(田)·답(畓)일수록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미군기지 공여구역의 문화적 가치에 관련하여, 최재현·남영우(2014)는 용산 미군기지가 문화적 장소성을 가지는 유산으로 인식하여 상징성과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고찰하고 바람직한 개발의 방향을 논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용산 미군기지의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보존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세계유산으로 등재 조건을 충족하며 지역 상징성을 지키면서 교육적 가치 및 정체성을 위한 활용 가치를 높이는 것을 제안하였다.

홍성태(2000)는 용산 미군기지를 문화생태공간으로 조성하여 파괴된 서울의 생태축을 재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공간 정의의 관점에서 문헌연구를 통하여 용산 미군기지가 가지는 가치에 대하여 논하였다. 주한미군 기지들의 반환을 통해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하며, 군사공간의 생태적 재생과 문화생태공간 구상에 초점을 맞추어 많은 사람들의 실천적 참여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상술한 연구들의 경우 미군기지 주변지역의 특성에 대해 정량적으로 분석하거나, 역사·문화적 가치에 대해 문헌연구를 통해 고찰하였다. 이 연구는 중소도시에 입지한 미군기지 근린 주변의 특성을 근린 단위에서 정량·정성적 방법을 활용해 혼합적으로 접근하였다. 또한 지역의 실태를 기초로 근린 지역의 단위에서 대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점이 있다.

한편, 선행연구들 중 양적 연구를 통하여 변수를 제시한 논문들을 추출하여 변수들을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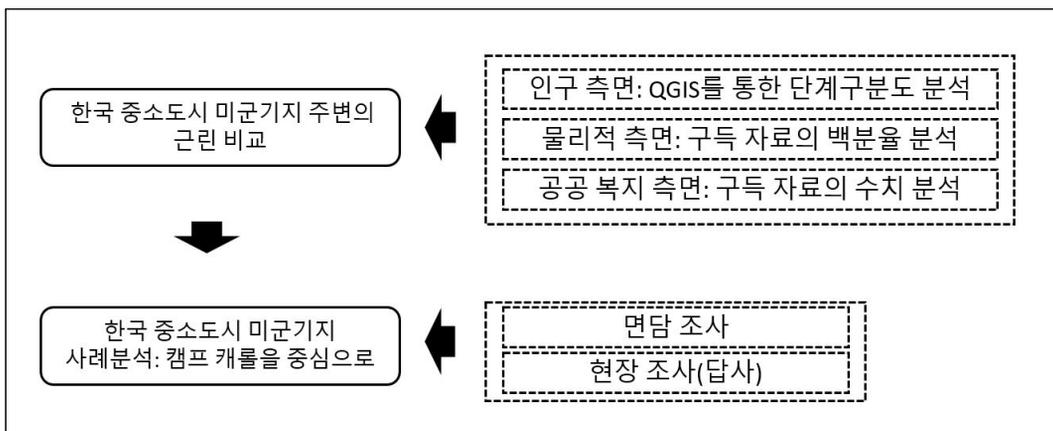
〈표 1〉 양적 연구 활용 선행연구들의 변수 정리

연구자	부문	분석지표
한인영 · 오은주 (2014)	인구 측면	노령화지수, 인구밀도, 인구증가율(2007년~2012년)
	물리적 측면	주택보급율, 빈집비율, 신규주택비율, 노후주택비율, 1인당 도로 연장
	재정, 복지 측면	1인당 세출예산,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재정자주도, 사회복지시설밀도
	산업, 경제 측면	1인당 GRDP, 고용률, 실업률, 사업체당 종사자수, 제조업 종사자수
송석호 등 (2022)	경제적 측면	지가상승률(국토교통부 표준지공시지가, 2012~2015년, 2015~2018년, 2018~2021년간 자료가 활용됨)
	물리적 측면	용도지역, 거리, 형상, 접면, 이용 상황, 토지면적 (지적공부 활용)

주: 한인영·오은주(2014)의 분석지표들 중 1인당 GRDP는 2011년, 주택공급률과 빈집비율, 신규주택비율과 노후주택비율은 주택총조사를 활용하므로 2010년 기준임. 단, 그 이외 지표들은 모두 2012년 자료임. 그리고 주택총조사 자료 이외의 다른 자료들의 경우 통계청(KOSIS) 출처 자료들임.

III. 분석 과정

〈그림 2〉 연구 흐름도(저자 작성)



이 연구에서 주요 분석은 IV장 및 V장에서 실시되었다. 우선 IV장의 인구 측면에서 QGI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내추럴 브레이크(natural break) 방식을 활용한 단계구분도를 구현하여

비교하였다. 집계구 단위의 백지도를 활용하여 국가통계포털에서 구득한 인구 데이터(노령화 지수, 인구밀도)를 결합하였다(KOSIS, 2024; SGIS, 2024).

물리적 측면에서는 국토지리정보원(2024) 및 공공데이터포털(2024)에서 구득한 용도지역 데이터와 도로 연장 및 주차장 수를 활용하여 자료를 비교 및 분석하였다. 백분율 값을 활용한 이유는 선형 자료의 경우 공간 규모에 따라 자료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비율값을 활용하였다.

공공 복지 측면에서는 구득 자료의 수치를 산술적으로 파악하였다. 공공기관 수와 버스정류장 수, 병원 수와 학교 수를 자료로 활용하였다. 물리적 측면과 마찬가지로 국토지리정보원(2024)과 공공데이터포털(2024)에서 구득한 자료들을 활용하였다.

V장에서는 정성적 접근이 실시되었다. 면담조사는 2차례 실시되었고, 면담 지역 내에서 근무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미군기지 주변 근린 지역의 쇠퇴를 중심으로 질의하였다. 현장조사의 경우 사례 지역인 경상북도 칠곡군의 캠프 캐롤의 근린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해당 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내거나 지역의 쇠퇴 징후를 보이는 지점들을 중심으로 답사를 통한 사진 촬영을 실시하였다.

IV. 한국 중소도시 미군기지 주변의 근린 비교

한국 중소도시 미군기지 주변의 근린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 지역을 설정하였다. 연구 지역의 조건으로, 첫째, 미군기지가 소재하면서 중소도시에 대한 정의에 부합하는 지역을 선택하였다. 여러 문헌에서 제시하는 중소도시의 인구 기준 내에서 최대한 많은 기지를 연구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인구 5만에서 100만명까지의 도시를 범위로 설정하였다(박병호, 2009). 둘째, 공여구역 중 'Camp' 이상 급의 기지를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해당 규모 이상 기지는 상주 병력 및 지원 인력이 있기에 근린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USFK, 2024). 셋째, 해군과 공군의 경우처럼 기존 한국 내 기반시설을 공유하는 경우는 조건에서 배제하였다. 여객 공항과 기존 해군항을 공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연구 지역은 동두천 캠프 케이시와 캠프 호비, 평택 미군기지, 칠곡의 캠프 캐롤, 오산 AB와 군산 AB, 마지막으로 포항의 캠프 무적이 선정되었다. 한편, 의정부 캠프 스탠리(Camp Stanley)는 Area I 지역의 지원 기지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예하 부대 대부분이 평택 미군기지로 이전되어 연구 지역에서 배제하였다. 한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평택시와 주요 산업도시인 포항시는 인구감소지역인 칠곡군과 동일선상에 놓기 어려울 수 있다. 다

만 실제 비교는 부대 인근 리 단위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평택시와 포항시의 연구 지역도 중심지 혹은 산업 집적지와 거리가 멀어 비교 대상으로 적절하다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미군기지 주변의 근린 구조를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첫째, 인구 측면에서 노령화지수와 인구밀도를 집계구 단위에서 지도화하여 기초자치단체 범위의 행정구역 내에서 인구 정보의 분포를 파악할 수 있었다. 노령화 정도나 인구밀도를 통하여 지역의 쇠퇴 혹은 활력도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둘째, 물리적 측면에서 용도지역 비율이나 주요 도로의 연장, 주차장 수 등을 파악하였다. 근린 지역의 면적 적정화를 위해서 위 정보는 면·동이나 리 단위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용도지역 비율의 경우 면적 비교를 통해 공통적 특성을 가지는 지역을 도출하였다. 물리적 측면은 지역 내 주거 형태와 교통 접근성을 파악하여 지역 쇠퇴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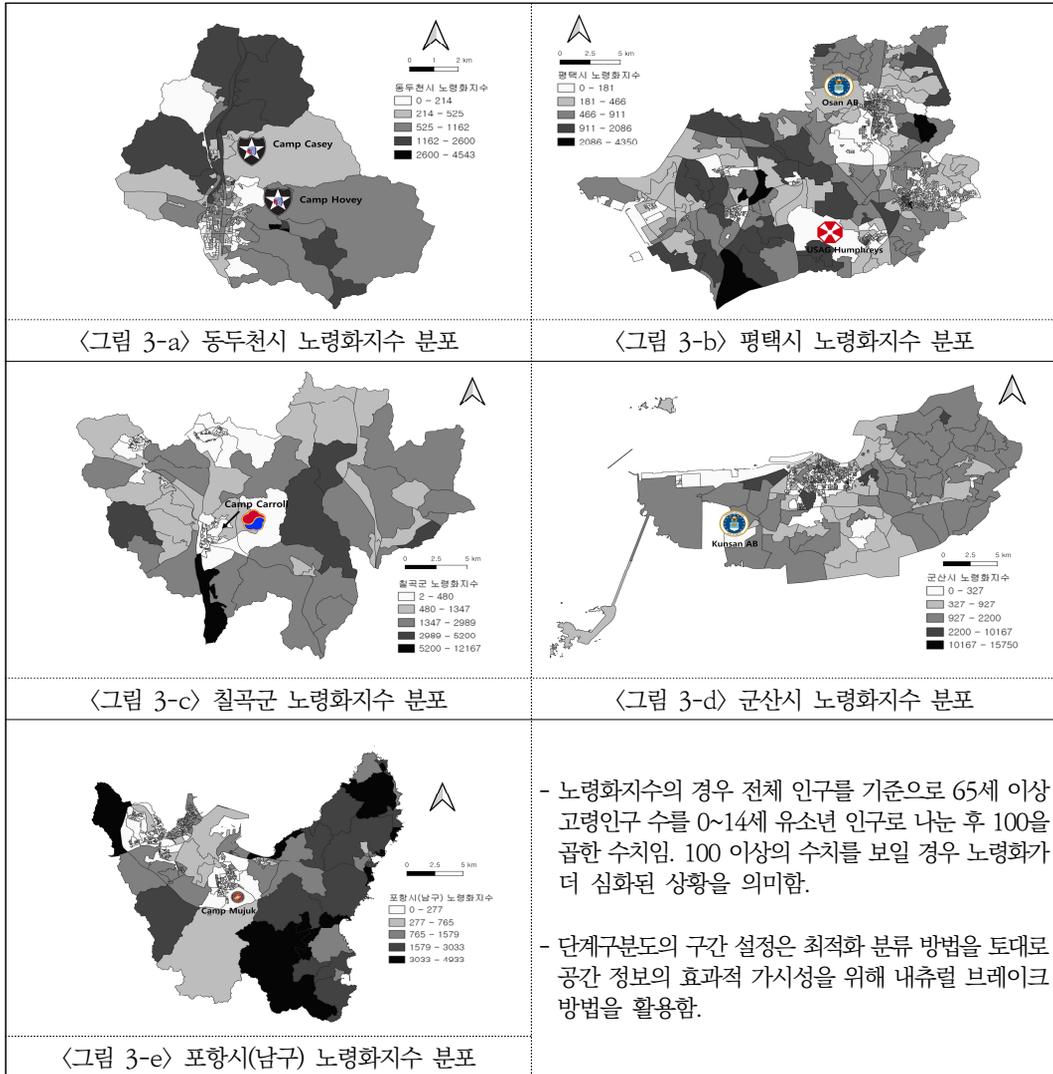
셋째, 공공 복지 측면에서 공공기관 수와 병원 및 버스 정류장 수 등을 파악하였다. 물리적 측면과 마찬가지로 면적 적정화를 위하여 면·동이나 리 단위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공공 복지 관련 수치가 낮을수록 지역 쇠퇴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먼저, 인구 측면에서 노령화지수 분포를 분석하였다. <그림 3-a>부터 <그림 3-e>까지는 통계청에서 구득한 2022년 중소도시별 미군기지가 있는 지역의 집계구 단위 노령화지수 분포이다. 집계구 자료가 2022년까지 제공되는 관계로 해당 시점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동두천시의 경우 캠프 케이시 주변 동두천역 및 보산역 일대가 상대적으로 노령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동두천일반산업단지 일대와 캠프 캐슬(Camp Castle) 반환공여구역에 들어선 동양대학교 일대, 학교들이 입지한 생연1동 일대의 경우 비교적 노령화지수가 낮게 나타났다. 인접 기지인 캠프 호비의 경우 입구 주변에 노인 대상 요양병원이 다수 입지하여 노령화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평택시의 경우 캠프 험프리스와 송탄에 위치한 오산 AB 모두 일대가 낮은 노령화지수를 보였다. 이러한 패턴은 칠곡군의 캠프 캐롤 및 군산시의 군산 AB, 포항시(남구)의 캠프 무적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즉, 미군기지 주변 근린 지역의 노령화지수 분포의 경우 구시가지에 입지하거나 지역 간 양극화로 인한 이중도시(dual city) 현상이 보이는 사례를 제외하고는 낮은 노령화지수 수치를 보였다. 이는 군 기지 주변의 영외 숙소에 부사관이나 장교들과 가족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림 3〉 중소도시 내 미군기지 주변 근린지역 노령화지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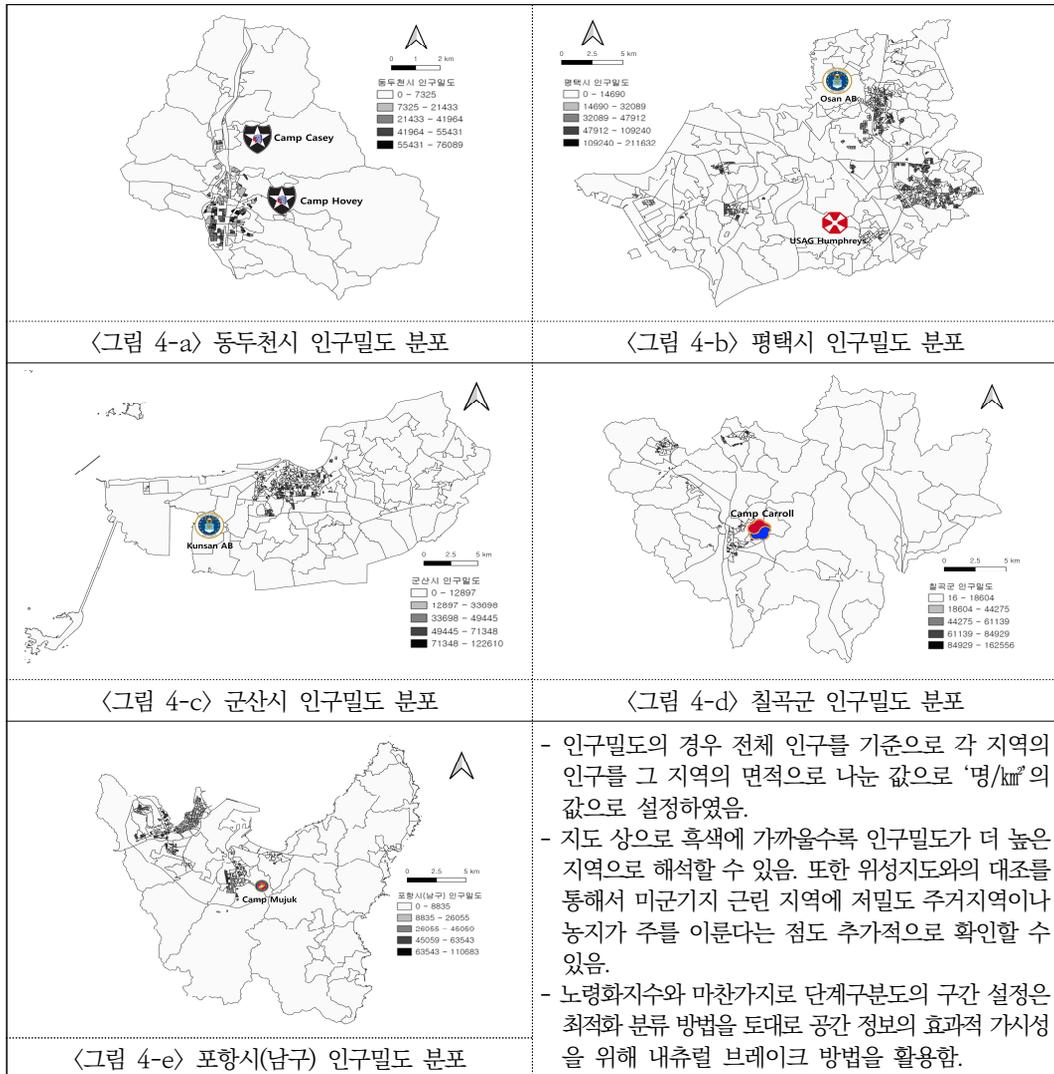


출처: KOSIS(2024) 및 SGIS(2024)를 저자가 QGIS로 재구성

인구밀도 측면의 분석 결과는 〈그림 4-a〉부터 〈그림 4-e〉까지와 같다. 역시 자료 구득의 한계로 집계구 단위로 2022년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였다. 5개의 중소도시들에 포함되는 7개의 미군기지 주변 근린 지역 모두 낮은 인구밀도를 보이고 있었다. 위 지역들의 공통된 특징으로 새로 조성된 신시가지의 경우 비교적 높은 인구밀도를 보이며 구시가지는 상대적으로 더 낮은 인구밀도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구시가지의 쇠퇴로 인한 부도심 및 신도시의 부상

과도 연결된다(김예슬·김형보, 2015). 미군기지는 주로 구시가지나 도시부와 이격된 지역에 소재하였으며 근린 지역이 저밀도의 도시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인구밀도는 주거를 뒷받침하는 기능의 부족과 군 기지 주변 치안, 소음에 대한 거부 심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4〉 중소도시 내 미군기지 주변 근린지역 인구밀도 분포



출처: KOSIS(2024) 및 SGIS(2024)를 저자가 QGIS로 재구성

다음으로, 물리적 측면의 정보들에 대해 <표 2>와 같이 분석하였다. 행정구역인 면·동 혹은 리 단위에서 용도지역 비율이나 주요 도로의 연장, 주차장 수 등을 파악하였다. 칠곡군 왜관읍이나 포항시 남구 오천읍과 같이 미군기지의 영향권과 상관없는 지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 리 단위로 접근하였다.

<표 2> 중소도시 별 근린 지역 물리적 측면 비교 분석

물리적 측면		캠프 케이시 (동두천)	캠프 호비 (동두천)	캠프 험프리스 (평택)	오산 AB (평택)	캠프 캐롤 (칠곡)	군산 AB (군산)	캠프 무적 (포항 남구)
용도 지역 비율	일반상업지역	20%	13%	19%	34%	15%	-	29%
	제1종전용주거지역	10%	-	-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64%	25%	67%	51%	55%	-	71%
	제2종일반주거지역	6%	15%	13%	15%	18%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12%	-	-
	준주거지역	-	-	1%	-	-	-	-
	공업지역	-	47%	-	-	-	-	-
	합산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도로 연장 백분율		0.8%	0.9%	0.1%	0.5%	1.9%	0.2%	0.5%
주차장 수 백분율		0.8%	2%	3%	13%	33%	3%	2%

출처: 국토지리정보원(2024) 지적 정보, 공공데이터포털(2024) 제공 데이터를 저자가 재구성

근린지역 설정을 위해 캠프 케이시는 동두천시 보산동, 캠프 호비는 동두천시 광암동, 캠프 험프리스는 팽성읍 일대 9개 리를 대상으로 하였다. 오산 AB는 평택시 신장동과 서탄면 2개 리, 캠프 캐롤은 칠곡군 왜관읍의 3개 리, 군산 AB는 옥서면 일대, 마지막으로 캠프 무적의 경우 포항시 오천읍의 세계리 1개를 대상으로 하였다.

면·동 단위와 리 단위는 동일한 위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적합한 비교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미군기지와 배후 근린 지역이 면과 동 전역을 포함할 때, 면과 동을 연구 지역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읍·면·동 내에서 일부 리에 미군기지 및 근린 지역이 위치하는 경우 리를 연구 지역으로 설정하였다. 즉, 이 연구에서 연구지역인 면·동과 리는 미군기지 및 근린 지역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용도지역 비율과 도로 연장 백분율의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의 2024년 1월 자료를, 주차장 수의 경우 공공데이터포털의 2024년 1월 자료를 활용하였다.

용도지역 비율은 근린 지역의 기능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용도지역 비율의 경우 토지 이용 특성에 따른 양적 비교가 더 용이하다는 점에서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자연

취락이나 관리지역 등의 경우 도시 기능(주거, 산업, 상업 등)을 나타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용도지역 비율 통계에서 제외하였다. 군산 AB의 경우 용도지역 비율의 값이 없는데, 위에서 제시된 지역이 없고 자연취락이나 임야 등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도로 연장 백분율의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 편의·접근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단순 도로 연장 수치로는 해당 지역의 도로 교통 수혜가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지역 관내 전체 도로 연장 대비 해당 근린 지역의 4차선 도로 연장 백분율을 수치로 활용하였다. 주차장 수 백분율의 경우 도로 연장 백분율과 마찬가지로 교통 편의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를 구독하였다(공공데이터포털, 2023). 특히 주차장 수 백분율의 경우 방문인구의 편의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연구지역들에서 대체적으로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캠프 호비 인근에는 지역 발전소가 위치하여 공업지역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다음 순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군 기지 주변 보안 등의 문제로 고층 건물이나 아파트 등의 입지가 제한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일반상업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네 개의 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이 두 번째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미군과 가족 대상 영업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해석된다. 도시화의 영향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비율은 각 지역마다 편차가 있었으나, 군산 AB와 캠프 무적의 근린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 위치하였다. 제1종전용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공업지역은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위치하거나 비율이 크게 적었다.

도로 연장의 경우 칠곡군의 캠프 캐롤과 동두천의 캠프 케이시, 캠프 호비 기지의 백분율 값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위 기지가 있는 지역들의 경우 행정 중심기관이 소재하거나 역(驛)이 위치한다는 특징이 있었다. 주차장 수 백분율의 경우 오산 AB와 캠프 캐롤의 경우 다른 근린 지역들에 비교하여 수치가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 지역들의 경우에도 도로 연장과 마찬가지로 인근에 행정기관이나 기차역 혹은 전철역이 소재하여 자가용 교통 수용을 위한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다른 근린 지역들의 경우 도로 연장 백분율과 주차장 수 백분율의 수치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 교통 흐름이 군 기지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행정 중심기관이나 역의 위치로 인하여 물리적 측면의 공간 정보가 양호한 수치를 보이는 것은 해당 지역의 특수한 조건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부분은 예외 사례로 인식하면서 다른 지역의 결과값을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복지 측면에서 공공기관과 병원, 버스 정류장의 수를 표 3과 같이 파악하였다. 공공기관 수의 경우 행정 서비스 접근의 용이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물리적 측면으로 도로 연장 백분율이나 주차장 수 백분율의 경우 대중교통 측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정류장 수를 통하여 대중교통 접근도를 파악하였다. 그리

고 병원과 학교 개수를 통하여 기본적인 의료와 교육 등 복지 관련 측면을 확인하였다.

공공기관 수와 병원 수, 학교 수의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의 2024년 1월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버스 정류장 수는 공공데이터포털의 2024년 1월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표 3〉 중소도시 별 근린 지역의 공공 복지 측면 비교 분석

공공 복지 측면	캠프 케이시 (동두천)	캠프 호비 (동두천)	캠프 험프리스 (평택)	오산 AB (평택)	캠프 캐롤 (칠곡)	군산 AB (군산)	캠프 무적 (포항)
공공기관 수	1	-	5	7	9	4	4
버스정류장 수	20	20	74	71	42	62	23
병원 수	-	2	12	26	27	3	12
학교 수	-	-	-	4	9	1	1

출처: 국토지리정보원(2024) 버스정류장 데이터, 공공데이터포털(2024) 제공 데이터를 저자 재구성

근린 지역 설정은 상술한 물리적 측면 비교 부분과 동일하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미군기지 주변 근린 지역에서 공공 복지 측면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지역은 캠프 캐롤 일대였다. 그 다음으로 오산 AB와 캠프 험프리스가 뒤따랐다.

공공기관의 수가 많은 캠프 캐롤과 오산 AB는 각각 지역의 행정(칠곡군청) 혹은 상업 중심지(송탄)가 근접하다는 특징이 있었다. 병원 수와 학교 수 정보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버스정류장 수의 경우 다른 경향이 나타났는데, 캠프 험프리스나 오산 AB, 군산 AB에서 버스 정류장의 수가 많았다. 위 기지들의 공통점은 기지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고 사방이 도로나 주거지역으로 싸여있는 형태라는 점이다. 이에 더하여, 평택 캠프 험프리스와 군산 AB의 경우는 농어촌 버스 정류장도 상대적으로 전체 버스정류장 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진다.

정리하자면, 공공 복지와 관련하여 역이나 행정기관이 입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치가 비교적 적게 나타났다. 다른 기지들의 경우 구시가지나 도시지역과 이격된 곳에 위치하여 비교적 낮은 값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버스 정류장 수의 경우 역이나 행정기관의 입지 이외에 기지 면적이나 농어촌 버스 정류장 등의 요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추가로, 동두천시에 입지한 캠프 케이시와 캠프 호비의 경우 모든 공공 복지 측면에서 비교적 낮은 값들이 나타나고 있다. 물리적 측면과 마찬가지로 행정 중심기관이나 역의 위치로 공공 복지 관련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예외 사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른 지역의 결과값들을 일반화를 위한 자료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인구, 물리, 공공 복지 측면의 근린 비교를 통하여 산술적인 비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쇠퇴에 대하여 사고를 연결해볼 수 있다. 노령화지수가 높은 지역의 경우 노인 빈곤의 가능성이 상존한다. 저층형 주거지역이 주를 이루는 지역들에서는 공동주택 단지에 비하여 빈 집과 슬럼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공공 복지와 관련된 수치들은 값이 작을수록 쇠퇴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침체 문제에 대하여 대안 강구가 함께 필요할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지는 V장에서 지역 쇠퇴와 관련하여 질적 접근을 통하여 미군기지 주변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V. 한국 중소도시 미군기지 사례분석: 캠프 캐롤을 중심으로

한국 중소도시의 미군기지 근린 지역의 실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례 지역으로 경상북도 칠곡군에 소재한 캠프 캐롤을 선정하였다. 캠프 캐롤은 왜관읍 내에 소재하는데, 지역 경제의 많은 부분이 미군기지에 의존하고 있다. 기지 입구(gate)를 중심으로 미군 및 외국인 대 상 상업지역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캠프 캐롤 일대를 사례 지역으로 선정한 구체적인 이유는, 첫째, 캠프 캐롤의 경우 기지 조성 시점이 1959년으로 기지 이전으로 새로 조성된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보다 근린의 쇠퇴를 파악하기 용이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둘째, 캠프 캐롤의 경우 주한미군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육군(U.S. Army) 부대이며, 그에 따른 관계인구가 많을 것이라 추측하였다. 셋째, 칠곡군 캠프 캐롤의 부대 이전 계획은 현재 구체적으로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철수가 진행중인 동두천 내 캠프 케이시나 캠프 호비와 비교하여 기존 부대가 건재한 상황에서의 미군기지 근린 지역의 쇠퇴를 더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답사는 면담 조사와 현장 조사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면담 조사를 통하여 미군 기지와 관련된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다. 한편, 현장 조사를 통하여 미군 기지 주변 근린 지역의 쇠퇴 현황을 실제적으로 파악하고,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캠프 캐롤의 근린 지역과 관련한 구성원들과의 면담 조사는 <표 4>와 같이 진행되었다.

〈표 4〉 캠프 캐롤 근린 지역 관련 구성원에 대한 면담 정보

면담 대상		시간	장소
지역 공무원	칠곡군청 공보실 박OO 주무관	2024년 1월 8일 10시	칠곡군청
지역 택시기사	칠곡군 개인택시기사 강OO	2024년 1월 8일 11시	왜관, 석전리 일원
지역 소상공인	석전리 환전소 사장 서OO	2024년 1월 8일 13시 30분	석전리 환전소
미군기지 군무원	캠프 캐롤 군무원 김OO	2024년 5월 16일 15시	왜관리 일원
지역 학교 교원	왜관중앙초등학교 교감 천OO	2024년 5월 16일 16시	왜관중앙초등학교

먼저, 지역 공무원의 경우 미군기지와 관련하여 업무 분장 상 접점이 많은 관계자를 면담하였다. 지역사회(지방자치단체)에서 주한미군과 연계하여 협력하는 사례에 대해 질문하였다.

저자: 칠곡군(청)에서 미군기지와 어떤 부분에서 협력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역 공무원: 현재 칠곡군(청)에서는 다양한 행사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와 주한미군 간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303고지 위령제(추모제)를 추진하고 한미 우정의 공원과 엘리엇 중위 공원 등을 조성, 워커 장군 흉상 제막식을 여는 등 한국전쟁과 관련하여 양국의 우호를 증대하는 행사들을 열어왔습니다. 또한 각종 한미 친선-우호 행사와 미군과 함께하는 지역축제 추진을 통해 실제 지역에서의 미군과의 유대감을 높이는 활동도 진행중입니다.

지역 공무원은 지역사회와 주한미군의 우호를 증진하고 함께 유대감을 높일 수 있는 행사가 다방면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지역 경제 및 관광인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이 잘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었다. 특히 한국전쟁과 관련한 주제의 행사가 많은 점이 두드러졌다. 이는 미군 기지와 관련한 문화 콘텐츠를 전면에 세워 지역 내 이벤트를 기획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지역 택시기사의 경우 왜관역에서 미군기지 후문을 이동하는 동선을 따라 면담을 진행하였고 미군기지의 지역사회에의 영향력과 변화를 위주로 질문하였다.

저자: 미군기지가 지역 경제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그리고 그 영향력이 이 전보다 강해졌는지, 계속 약화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역 택시기사: 지역 경제에 상당히 큰 영향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미군기지 확대를 오히려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미군기지가 대규모로 감축된다면, 상당히 지역사회에 큰 타격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약 10년 전에 비해 주변 지역이 많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020년부터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경기가 위축되었고, 또 문화 자체가 음주를 지양하는 쪽으로 변화하여 상권이 축소된 면도 있습니다.

지역 택시기사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체감하는 미군기지의 영향력을 현실적으로 밝혔다. 또한 감염병의 유행, 사회적 풍조 등과 관련하여 상권 쇠퇴의 맥락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였다. 셋째, 지역 소상공인으로부터 출입문(후문) 주변 상권의 경기에 대해 질문하였다.

저자: 사장님께서 체감하시는 근처 상권의 경기 상황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 소상공인: 경기는 무척 안 좋은 편입니다. 실제 업장에는 미군, 외국인의 비중이 크긴 하지만 수가 많이 감소하였어요. 미군기지 내 부대가 많이 본국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경기 위축으로 이어졌고, 앞으로도 더 나빠질 일만 있겠습니다.

지역 소상공인은 경기가 무척 나쁨에 대하여 토로하였으며 미군기지에서 근무하는 미군들의 많은 수가 본국으로 이동하여 상권에 큰 악영향이 있었다는 것을 밝혔다. 실제로 미군 개인이 이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 단위로 움직이며 거주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라 사료된다.

넷째, 미군기지 군무원에게 미군기지 내부 및 외부의 변화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저자: 미군기지 내외의 변화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군기지 군무원: 인원감축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우려하는 만큼 기지가 급격히 이동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외부 변화를 말씀드리자면, 상권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기지 주변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중입니다.

미군기지 군무원의 경우 캠프 캐롤에 근무하며 인원 감축의 경우 기지의 존립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근린 지역 상권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대해 말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기지 주변 환경 개선 노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지역 공무원이 밝혔던 지역과 미군 기지와의 협력 사업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지역 내 초등학교 교원과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특히, 근린 지역에 소재한 왜관중앙초등학교의 경우 다문화 교육이 특색교육의 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미군기지 및 주변 지역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저자: 다문화 교육이 특색교육의 한 부분인데, 학교에 실제 미군 자녀나 다문화 학생들이 많은가요?

지역 학교 교원: 학교 내에 우선 미군 자녀들이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따로 외국인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인 다문화 학생들이 전교 학생수의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주로 동남아시아나 서남아시아 계열의 학생들로, 미군부대 주변에 밀집하여 정착하고 있습니다.

지역 학교 교원의 경우 사례 지역의 학교가 다문화 학생이 많은 상황이지만 이들이 미군 자녀들은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다만, 미군기지 주변 근린 지역에 아시아를 중심으로 다양한 민족과 문화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였다. 이를 통하여 미군기지 주변 근린 지역이 미군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주체들이 공존하는 지역임을 알 수 있었다.

위와 같은 면담 조사를 통해 사례 지역 미군기지의 근린 지역과 관련된 구성원들은 지역의 경제 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견해를 말하는 경우가 많았다. 상권이 이미 축소된 상황이고, 추가적인 캠프 캐롤로의 부대 이동이 없을 경우 쇠퇴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지역사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주한미군과의 연계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조금 더 실질적인 측면의 도움을 위하여, 쇠퇴하는 상권을 위한 지원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그리고 미군기지 주변 근린 지역에는 미군뿐 아니라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공존한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사례 지역의 실제적 상황과 쇠퇴 징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관을 중심으로 현장 조사를 수행하였다. 미군기지의 근린 지역이라는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문화적 특성과 폐점포 등의 쇠퇴 징후 등을 발견하고자 노력하였다. 현장조사는 2024년 1월 8일 수행되었고, <그림 5>와 같은 경로로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후문 상권 일대를 조사하였다. 사진들은 모두 직접 촬영하였다.

〈그림 5〉 미군기지 주변 근린지역 현장조사 사진



〈그림 5-a〉 미군기지 후문 상권 거리



〈그림 5-b〉 외국인 대상 공인중개사



〈그림 5-c〉 필리핀 요리 전문 식당



〈그림 5-d〉 미군기지 후문 상권 폐업 업체

출처: 저자 직접 촬영(2024. 1. 8.)

〈그림 5-a〉부터 〈그림 5-d〉를 보면, 캠프 캐럴 후문 상권 거리에는 영어로 된 간판들이 많이 보였다. 미군과 외국인들이 주 고객이기에 식당의 메뉴 표기에도 한글과 영어가 병기된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영외 거주하는 미군이나 부대 관련 외국인 근무자들을 주로 상대하는 공인중개사도 발견할 수 있었다. 주택 임대와 관련한 사항을 취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미국뿐 아니라 멕시코, 필리핀, 인도 등 다양한 국가의 음식들을 전문으로 하는 휴게음식점들도 찾을 수 있었다. 한편, 폐점포 역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코로나19 이후 상권 약화로 인한 쇠퇴의 징후로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그림 5-d〉를 포함하여 현장조사 결과 많은 폐점포들이 미군 대상의 유흥업소나 일반음식점들이 많았다. 이는 미군들의 근린 지역에서의 소비가 감소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업이 잘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도 파악할 수 있다.

현장조사 결과를 정리하자면, 먼저, 미군기지의 근린 지역은 미군 및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체가 많으며 언어 등 문화적 특징까지 함께 반영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미국 문화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다양한 문화의 병존을 함께 발견할 수 있었다. 다만, 면담 조사 때 확인한 바와 같이 실제로 유동인구가 많지 않고 폐점포가 발견되는 등 쇠퇴 징후를 발견할 수 있었다. 왜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 중심상권과 거리가 먼 점과, 상술하였듯 코로나19 및 기지 내 문화의 변화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지역 활성화 및 재생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사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VI. 결 론

이 연구는 인구 5만 이상부터 100만 이하의 도시에 위치한 일정 규모 이상의 자체적인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한국 중소도시 미군기지들의 근린 지역을 인구, 물리적, 공공복지 측면에서 비교하고 지역 쇠퇴 실태를 중심으로 특성을 고찰하였다. 동두천 캠프 케이시와 캠프 호비, 평택 캠프 험프리스와 칠곡의 캠프 캐럴, 오산 AB와 군산 AB, 그리고 포항의 캠프 무적이 연구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미군기지 주변의 근린 구조를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인구 측면(노령화지수, 인구밀도), 물리적 측면(용도지역 비율, 도로 연장 백분율, 주차장 수 백분율), 공공 복지 측면(공공기관 수, 병원, 버스정류장 수)와 같이 진행하였다.

인구 측면에서 노령화지수의 경우 집계구 단위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중소도시 별 미군기지 주변 근린 지역의 노령화지수는 전체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구시가지에 기지가 입지하며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간 양극화가 심각한 지역의 미군기지의 경우 높은 노령화지수 값을 보였다. 낮은 노령화지수를 보이는 지역의 경우 기지 주변 군인 가족의 거주 등의 요인으로 해석된다. 인구밀도의 경우에도 집계구 단위에서 분석되었다. 미군기지들의 인구밀도는 낮은 편이었으며, 상대적으로 미군기지들이 구시가지에 위치하여 근린 지역이 저밀도의 도시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물리적 측면을 분석하였으며, 면·동 혹은 리 단위에서 용도지역 비율이나 도로 연장 백분율, 그리고 주차장 수 백분율을 파악하였다. 미군기지의 영향권과 상관없는 지역들이 다수 포함된 곳은 리 단위로 접근하였다. 용도지역 비율의 경우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일반상업지역 역시 제1종일반주거지역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미군기지의 근린 지역에서는 저층형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상업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도로 연장 백분율의 경우 칠곡군의 캠프 캐롤과 동두천의 캠프 케이시, 캠프 호비 기지가 높은 값이 나타났다. 또한 주차장 수 백분율의 경우에는 평택시의 오산 AB와 칠곡군의 캠프 캐롤이 비교적 높은 값을 보였다. 위 지역들은 인근 행정기관이나 기차역, 전철역 등으로 인한 자가용 교통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른 미군기지 근린 지역들은 도로 연장 백분율과 주차장 수 백분율의 수치가 비교적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지역 교통 흐름이 군 기지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공공복지 측면에서 공공기관과 병원, 버스 정류장의 수를 파악하였다. 근린 지역 설정은 물리적 측면의 분석과 동일하게 면·동 혹은 리 단위에서 수행되었다. 공공 복지 측면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지역은 캠프 캐롤 일대였다. 그 다음으로 오산 AB와 험프리 기지가 뒤따랐다. 중소도시 미군기지 근린 지역에서 행정 혹은 상업 중심지가 근접한 곳에서 공공기관의 수와 병원 수, 학교 수가 비교적 높은 값을 보였다. 정보들의 수치가 비교적 낮게 나타난 지역들의 경우 구시가지나 도시지역과 이격된 곳에 위치한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버스정류장 수의 경우 기지 규모와 순환도로의 유무, 농어촌 지역 등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추가로, 동두천시에 입지한 캠프 케이시와 캠프 호비의 경우 모든 공공 복지 측면에서 비교적 낮은 값을 보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침체 문제에 대하여 대안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해석된다.

면담 조사 결과, 사례 지역 미군기지의 근린 지역과 관련된 구성원들은 지역의 경제 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의견을 말하는 경우가 많았다. 상권이 이미 축소되었고, 추가적인 캠프 캐롤(Camp Carroll)로의 부대 이동이 없을 경우 쇠퇴가 지속될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지역사회를 위해 지방 자치단체에서 주한미군과 협력하여 여러 행사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쇠퇴하는 상권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책을 더 강구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그리고 미군기지 주변 근린 지역에는 미군뿐 아니라,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공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현장조사 결과를 정리하자면, 미군기지의 근린 지역은 미군 및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체가 많으며 언어 등 문화적 특징까지 함께 반영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미국 문화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다양한 문화의 병존을 함께 발견할 수 있었다. 다만, 면담 조사 때 확인한 바와 같이 실제로 유동인구가 많지 않고 폐점포가 발견되는 등 쇠퇴 징후를 발견할 수 있었다. 왜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 중심상권과 거리가 먼 점이나 지역의 인구 감소, 산업의 공동화 등의 요소들이 작용하였을 수 있다. 혹은 상술하였듯 코로나19 및 기지 내 문화의 변화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이는 미군들의 근린 지역에서의 소비가 감소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업이 잘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파악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미군기지 주변 근린에서는 주거를 뒷받침하는 기능이 부족하며, 군사 시설의 인접으로 인하여 개발이 어렵다는 단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지역 교통 흐름이 군 기지

위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으며, 주로 구시가지나 도시지역과 먼 곳에 위치하여 공공 복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판단할 수 있었다. 실제 현장 답사를 통해서도 지역 쇠퇴에 관련한 징후를 발견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다양한 문화가 병존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한다.

미군기지 주변 근린의 쇠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첫째, 다양한 문화적 특성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의 개발로 방문인구를 늘리는 방안이 있다. 미군기지 일대의 경우 외국어 간판 등 이국적인 경관으로 관광 수요를 일으킬 여지가 충분하다. 관 주도의 단순 예산 투입식 거리 조성이 아닌, 상향식 콘텐츠 개발을 통하여 지속적인 방문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내실있는 추진이 필요하다. 문화 콘텐츠와 수요를 잘 파악하여 상업지구를 중심으로 특성있는 근린 지역의 정체성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교통 인프라와 대중교통 확대를 통하여 주민 편의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즉, 도로를 개선하고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교통 약자의 이동성을 제고하여 더 나은 지역으로 재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군기지 주변뿐 아니라 근린 지역 전체적으로 수요에 기반한 대중교통 체계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충분한 대중교통 체계가 확보된다면 도보를 통한 관광 및 이동 수요까지도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충분한 주차장의 확보는 방문인구로 야기되는 혼잡도를 경감하고, 나아가 지역민의 교통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셋째, 교육과 의료, 공공서비스 등 복지와 행정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기존 주민들의 정주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새로운 이주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역 거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와 행정에 대한 사항들을 조사하여 수요 응답형 예산 투입이 시행되어야 한다. 행정기관이나 역 등의 외부 변수와 상관없이, 해당 지역의 공공 복지 측면에 대한 접근도가 높을 때 지역에 대한 주거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인구 측면에서 미군기지 주변은 노령화지수가 낮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다. 이를 통하여 미군기지와 근린 지역의 인구 구성 상 유소년층 및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지역 활성화에 있어 효과가 있을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이들이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지역 내 맞춤형 지원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년층들의 경우 지속 거주를 위하여 창업이나 주거 지원 등 적극적인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한국 중소도시 미군기지 주변의 근린 구조에 대해 여러 정보들을 통해 기술통계적으로 비교하고, 근린 지역의 특성에 대해 해석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근린 비교에 있어 물리적 측면과 공공 복지 측면의 경우 면과 동, 리 단위로 분석이 이루어져 집계구 단위 연구에 비해 세밀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더 많은 지역들의 공간정보를 통한 비교와 이들 간의 관계를 통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의 해소는 향후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소영·이남석·오승익. (2021). 주한미군기지 반환 후 개발에 따른 지역사회 변화. 「국방정책 연구」, 37(1): 215-239.
- 김예슬·김형보. (2015). 도시재생과 활성화를 위한 구시가지 쇠퇴분석연구. 「GRI연구논총」, 17(3): 339-359.
- 남정욱. (2002). 「한미군사관계사」. 군사편찬연구소.
- 박병호·한상욱·김태영. (2009). 지방중소도시의 인구중심 및 내부구조 변화 패턴 분석. 「국토계획」, 44(1): 61-72.
- 송석호·진동석·정영·최운수. (2022). 군사기지 이전이 주변 공시지가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주한미군 평택 험프리 기지를 중심으로. 「한국지적학회지」, 38(1): 109-121.
- 우정범·권남연·오승익. (2020). 미군기지이전사업 관련 한미 간 쟁점, 해소 과정, 시사점. 「국방정책 연구」, 36(3): 209-233.
- 윤현위·이미홍. (2015).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본 중소도시의 유형과 특성.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8(2): 123-135.
- 이왕건·정미숙·김우락·류태희·이유리·이현수·조재범·주희선. (2011). 「군사시설 이전부지를 활용한 재생사례」. 국토연구원.
- 장윤배·이훈·이상경·김성희. (2018). 반환공여구역 사업 추진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도시정보」, 438: 3-13.
- 장정민. (2006). 미군기지 주변지역의 도시재정비 사업방향. 「국방정책연구」, 22(1): 179-196.
- 최재현·남영우. (2014). 용산 미군기지의 문화유산 가치와 도시발전 방향.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7(2): 1-13.
- 한인영·오은주. (2014). 미군기지 주변지역의 유형별 특성에 따른 발전방안 연구. 「지방행정연구」, 28(4): 473-496.
- 허훈·강석찬·조윤기·동두천시. (2016). 「동두천과 주한미군」. 조명문화사.
- 홍성태. (2000). 군사공간의 생태적 재생과 문화정치 - 용산 미군기지의 경우 -. 「공간과 사회」, 14: 108-129.
- Alvah, D. (2007). *Unofficial Ambassadors: American Military Families Overseas and the Cold War, 1946-1965*. New York University Press.
- Denfeld, C. (1997). *American Military Camps in the Republic of Korea, 1866-1996*. Anchorage, Alaska: Pacific Bases Research.
- Delmelle, E. (2015). Mapping the DNA of Urban Neighborhoods: Clustering Longitudinal Sequences of Neighborhood Socioeconomic Change. *Annals of the American*

- Association of Geographers*, 106(1): 36-56.
- Morrow, D. (1991). Alliances and Asymmetry: An Alternative to the Capability Aggregation Model of Allianc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5(4): 904-933.
- Pacione, M. (2009). *Urban Geography: A Global Perspective*, 3rd edition. New York: Routledge.
- Shelling, T. (1966). *Arms and Influence*. New Haven, Conn: Yale University Press.
- Shulman, S. (1992). *The Threat at Home: Confronting the Toxic Legacy of the U.S. Military*. Beacon Press.
- USFK(United States Forces Korea). (각 년도). <https://www.usfk.mil/>
- 공공데이터포털. (각 년도). <https://www.data.go.kr/>
- 교육부. (각 년도). <https://www.moe.go.kr/>
- 국토지리정보원. (각 년도). <https://www.ngii.go.kr/>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각 년도) <http://kosis.kr/>
- SGIS 통계정보지리서비스. (각 년도). <https://sgis.kostat.go.kr/>

윤복상: 한국교원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한국교원대학교 지리교육과에서 도시지리전공 박사과정에 재학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지역소멸 및 균형발전이며, 최근 발표 논문으로는 “충청북도 소멸위험의 공간분포와 실태 연구(2022)” 등이 있다(Email: cnue0502@naver.com).

김결: 미국 Florida State University에서 지리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한국교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도시재생(Gentrification) 및 공간정보이며, 최근 발표 논문으로는 “주거지 분화에 기반한 서울시의 공간 불평등 실태 분석(2024)”, “국가 디지털트윈의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2024)”, “공공분야 디지털트윈 확산을 위한 공간정보 정책방향(2023)” 등이 있다(Email: kirlk@knue.ac.kr).